

# 잠재계층분석을 통한 30대의 가사노동 참여 유형화

Participation in Housework Among 30-Somethings: A Latent Class Analysis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부

조 교 수 이 현 아\*

성남시정연구원

연구위원 권 순 범\*\*

Dept. Division of Human Ecology,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Lee, hyunah

Seongnam Research Institute

Research fellow Kwon, Soonbum

## 〈목 차〉

I. 서론

II. 선행연구 고찰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세대적, 생애주기적으로 구분되는 특성을 보이는 30대의 가사노동 참여 유형을 분석함으로써 가사노동의 속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0년 가족실태조사 자료에서 추출한 30대 남녀 2,687명의 가사노동 참여 여부를 유형화 지표로 잠재계층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 비참여형(18.05%), 전반적 참여형(59.96%), 청소 집중형(21.99%)의 3개 집단으로 유형화되었다. 가사노동 참여 유형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성별, 취업상태, 가족생애주기, 성역할 태도가 유의하였다. 여자는 남자보다 청소집중 참여형보다 전반적 비참여형에 속할 확률이 낮았으며, 전반적 참여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가족생애주기에 따라서는 형성기 이전인 경우에 청소 집중 참여형보다 전반적 비참여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으며, 형성기, 확대기인 경우에는 청소 집중 참여형보다 전반적 참여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본 연구결과는 가사노동의 성불평등성이 젊은 세대인 30대에게도 유효함을 시사하며, 같은 세대 내에서도 가족생애주기에 따라 가사노동 참여 유형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키워드:** 30대, 가사노동, 가사노동 참여, 가족생애주기, 잠재계층분석

## 〈Abstract〉

This study will examine the changing nature of housework by analyzing participation in domestic work among 30-somethings according to generational and life cycle characteristics. To this end, 2,687 men and women in their 30s were taken from the 2020 Family Status Survey data, and a latent class analysis was conducted to categorize their participation in housework. The subject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overall non-participation (18.05%), overall participation (59.96%), and intensive cleaning participation (21.99%). Gender, employment status, family life cycle, and attitudes about gender role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participation in housework. Men were more likely to be in the overall non-participation group, while women were more likely to be in the overall participation group. Individuals in the pre-formative period of the family life cycle were more likely to be in

\*주저자: 이현아(leehyunah@knou.ac.kr), <https://orcid.org/0000-0001-7835-3322>

\*\*고신저자: 권순범(sbkwon@snri.re.kr), <https://orcid.org/0000-0003-1487-3972>

the overall non-participation group, while those in the formative and expanding periods were more likely to be in the overall participation group.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gender inequality in housework is common in the younger generation; the results also show that, in the same generation, individual participation in housework differs according to family life cycle.

**Key words:** 30's, housework, participation in housework, family life cycle, latent class analysis

## I. 서론

인간다운 삶의 기초를 생산하는 원동력으로써 가사노동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1930년대 Reid(1934)의 '가계생산(household production)' 개념을 통해 본격화되었다. 리드(Reid)는 가사노동을 생산노동으로 보고, 시장에서 상품과 서비스로의 대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Reid, 1934). 이후 1960년대 Becker(1965), 1970년대 Walker & Woods(1976), 1980년대 Beutler & Owen(1980)으로 이어지면서 무보수 가사노동의 생산성 논의가 확대되었다. 가정에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매일매일 수행되는 가사노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욕구가 충족된다는 점에서 가사노동의 생산성이 인정되고, 또 시장의 상품과 서비스로 가사노동이 대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가사노동은 가족 구성원의 욕구 충족을 위해 가정 내에서 행해지는 무보수노동으로 시장과 사회로 대체할 수 있는 생산적 노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일상성, 무보수성, 생산성, 성불평등성, 대체가능성의 5가지로 가사노동의 속성을 정리할 수 있다(이현아·김은정·김유경, 2022).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가사노동의 속성 5가지 중에서 '일상성'과 '성불평등성'에서 출발하였다.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사노동이 일상적·반복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사노동의 일상성이다. 생활의 유지를 위해 누군가는 가사노동을 꼭 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사노동의 일상성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서 맞벌이 모델로 성역할 분담모델이 변화하면서, 가사노동의 성불평등성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성별 가사노동시간의 격차는 크다.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평일 기준 남성은 48분, 여성은 3시간 10분으로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여성의 1/4 수준에 불과하다(통계청, 2020).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반대하는 비율은 빠르게 증가하는 데 반해, 실제 가사노동시간은 여전히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따르고 있다.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에서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에 대한 찬반을 조사한 결과, 2014년과 비교할 때 2019년에 특히 30대에서 반대하는 비율의 증가(68.4% → 81.6%)가 13.2%로 가장 컸다(통계청, 2020). 이는 젊은 세대인 30대의 성역할 태도 변화가 다른 연령대보다 빠르다는 의미이다. 30대는 소위 'Y세대' 또는 '밀레니얼 세대'

로 불린다. 이들은 부모인 베이비부머와는 다른 삶의 패턴을 보이는데,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전통적인 아내, 남편의 역할이나 절대적인 희생은 거부하고, 동반자적 의식을 가지고 부부가 가사를 분담하고, 집안일에 썼던 시간을 아껴 자기 계발에 투자하는 여유를 즐기는 세대이다(중앙일보, 2019).

이러한 경향은 서울시 가사노동분담률 통계에서도 드러나, '아내와 남편이 공평하게 나눠하고 있다'는 비율이 30대는 44.6%로 40대(23.9%), 50대(11.3%)보다 월등히 높았다(서울특별시, 2022). 그렇다면 이러한 세대 특성은 실제 가사노동 참여 양상에서 어떻게 나타날까? 소위 밀레니얼 세대라 불리는 30대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가사노동을 어떤 형태로 수행하고 있을까?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거부하고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30대에게 성별 격차는 사라졌는가? 본 연구의 목적은 세대상으로 구분되는 특성이 있는 30대 남녀의 가사노동 참여 유형을 살펴봄으로써 가사노동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30대에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생애주기 관점에서 30대는 일과 가정에서의 역할이 변화하는 생애전환기이기 때문이다. 30대에는 취업, 분가, 결혼, 출산 등 다양한 생애사건을 경험하면서 일과 가정에서의 역할이 크게 변화하는 시기이다.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부모에게서 독립하고, 결혼과 출산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형성, 확대해 나가는 시기가 30대이다. 이처럼 중요한 생애사건을 경험하면서 가사노동에 대한 요구도 크게 달라지는데, 이것이 실제 가사노동 수행 양상에 어떠한 식으로 반영되어 나타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30대의 세대적, 생애주기적 특성을 기반으로 가사노동의 참여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가사노동 참여 형태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 고찰

### 1. 가사노동의 개념 및 범위

가사노동은 가족원에 의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보수 활동으로, 가족원의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한다(김외숙·이기

영, 2015). 가정은 모든 사람의 일상적 삶이 이루어지는 생활의 장으로서, 가족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과 양육, 교육, 보호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이다. 가사노동은 가족 구성원의 일상적인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노동으로 매일 반복적으로 수행된다. 사적 공간인 가정에서 가족원의 일상적 삶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원 중 누군가는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가사노동을 수행해야 한다. 우리는 가정에서 수행되는 가사노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삶을 지속해서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가사노동은 우리의 일상을 가능하게 하고 인간다운 삶의 기초를 생산하는 원동력으로써 의미가 있다(이현아 외, 2022).

가사노동은 돌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가사노동과 돌봄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사노동의 범위가 달라진다. 1999년부터 이루어진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는 가사노동을 크게 가정관리와 가족돌보기로 나누어 조사했는데, 이러한 방식은 가사노동을 광의의 개념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협의의 가사노동은 가정관리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일상적인 가사노동이 여기에 속한다(이현아 외, 2022). 광의의 가사노동에 속하는 가족돌보기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가정관리는 생활을 위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기에 보편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을 협의의 개념으로 국한하였다.

가사노동이 가정생활의 다차원적인 측면을 아우르는 만큼, 가사노동은 여러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다. 가사노동의 하위 영역을 수행 기능에 따라 구분하면 식사 관련 활동, 주택 손질, 의류 손질, 가족원 돌보기, 시장보기 및 관리 등 5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Walker & Woods, 1976). 국내에서는 가사노동을 식생활관리, 주생활관리, 의생활관리, 가족관리, 경영 및 장보기 등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거나(김선희, 1991; 정영금, 1989), 조리, 설거지, 청소·주생활관리, 세탁·의생활관리, 재봉·뜨개질, 자녀돌보기, 가족돌보기, 부모나 친척 관련 일, 시장·은행·관공서 일 보기 등 9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이기영 외, 1996). 그리고 2019년 생활시간조사에서는 가사노동이 가정관리에 속하여 음식 준비, 의류 관리, 청소 및 정리, 주거 및 가정용품 관리, 차량 관리 및 유지, 반려동물 및 식물 돌보기, 상품 및 서비스 구입, 기타 가정관리 등 8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통계청, 2019).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가사노동의 하위 영역에는 개인과 가족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뿐만 아니라 상품 및 서비스 구입과 같은 소비활동이 공통으로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30대의 특성

개인 생애에서 청년기는 경제활동을 시작하고, 결혼해서 가족을 형성하는 시기이다. 초혼연령이나 초산연령이 변화하는

것처럼, 청년기에 대한 기준은 시기마다 달라질 수 있다. 생애 주기를 구분하는 나이 기준으로 30세나 35세를 청년의 상한선으로 응답한 결과를 통해 30대 초·중반이 청년기로 인식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윤경, 2021). 인구통계에서도 2022년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가 33.7세, 여자가 31.3세로 30대 초·중반이었으며(통계청, 2023b), 2022년 여자의 평균 출산연령은 첫째가 33.0세, 둘째가 34.2세, 셋째가 35.6세, 넷째가 이상 36.5세로 나타났는데(통계청, 2023a), 이는 30대에 결혼과 출산이라는 생애사건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0대에 경험하는 생애사건은 가사노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성가족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출산 후 가사노동 수행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이진숙·이윤석, 2020), 출산을 경험한 부부의 가사노동 부담이 더 클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201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의 25~39세 청년 세대를 분석한 결과(이진숙·이윤석, 2018)에 따르면 여성은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가사노동시간이 더 많았다. 이에 반해, 남성은 혼자 사는 미혼인 경우에 가사노동시간이 가장 많았으며, 기혼인 경우에는 자녀가 있는 남성이 없는 남성보다 가사노동시간이 더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과 출산이 가사노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성별에 따라 생애사건의 영향력이 차별적임을 시사한다.

30대에 대해서는 생애주기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코호트적인 특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0년 기준으로 30대는 1981년부터 1990년 사이에 태어난 코호트로, 이 시기에 출생한 집단은 Y세대, 에코부머, 밀레니얼 세대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이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나 결혼 등 생애 전이기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송태민·진달래, 2013).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가족 내 성역할과 직업 스트레스가 에코부머의 자아존중감을 감소시켰는데(손정민·김현수·이은희, 2015), 이를 통해 에코부머가 가정과 일 두 영역에서 중요한 전이기에 있으며, 가사노동이 이들 삶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현재 30대가 다른 세대와 구분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5년마다 조사된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비교했을 때, 20~30대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서지원·기은광·고선강, 2021). 실제로 세대별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을 가사노동참여가설에 근거하여 분석한 연구에서 밀레니얼 세대를 불리하는 Y세대 기혼남성은 성역할 태도나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가정 내 가사노동의 요구와 가용한 시간에 따라 가사노동에 참여하여, 부모 세대인 베이비부머나 과도기세대인 X세대와는 차별화된 양상을 보였다(이현아·김주희, 2021). 이러한 결과는 현재 30대의 경우 과거보다는 가사노동의 성별 분업이 약화하였음을 보여주는 보여준다. 본 연구는 가사노동의 성불평등성이 약화되어 가

는 경향이 30대에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30대 내에서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가사노동 속성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 3. 가사노동 참여 관련요인

가사노동 참여와 관련하여 성별, 교육수준, 취업 여부, 소득 수준, 성역할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이 다뤄지고 있다. 가사노동 연구에서 성별은 핵심적인 변수로, 대부분의 연구는 성별에 따른 가사노동 참여의 차이를 전제하고 있다. 가사노동 참여의 시계열적인 변화 양상을 보면 남성의 가사노동시간과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의 가사노동 참여 수준이 남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서지원 외, 2021). 교육수준이 가사노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교육수준이 높은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더 많다는 결과가 있지만(이승미·이현아, 2011; 허수연·김한성, 2019),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조미라·윤수경, 2014). 소득수준에 대해서는 여성은 개인소득이 증가할수록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했지만, 남성은 그렇지 않아서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취업 여부도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었다(이진숙·이윤석, 2018). 가사노동 참여에서 성역할 태도는 이론적인 관점이 있을 정도로 주요한 요인으로 취급된다. 은기수(2009)는 성역할 태도가 가사노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지만, 반대되는 결과도 있으므로(허수연·김한성, 2019), 이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가사노동 연구에서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나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차이를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배호중, 2015; 엄규숙·황석만, 2019; 장인수·우해봉, 2017; 허수연·김한성, 2019), 이는 가사노동이 개인 단위에서만 아니라 가족 단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전제하며, 그에 따라 가사노동분담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가사노동이 가족 단위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한 가지 고려할 점은 가족생애주기에 따라 가사노동 참여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동패널 조사 자료의 맞벌이 부부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맞벌이 남편과 아내 모두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에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였다(허수연·김한성, 2019). 자녀 유무가 가족생애주기 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족생애주기에 따라 가사노동 참여 수준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가사노동 참여 연구는 가사노동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자녀돌봄이 영역별로 다른 성격을 지니는 것처럼(고은주·김진욱, 2016), 가사노동도 다양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므로 세부적으로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인 가구로 사는 밀레니얼 세대의 가사노동 시간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식사하기 52분, 청소하기 43분 설거지 27분, 세탁 23분, 쓰레기 버리기 5분 30초 등이었다(배소

영·반영환, 2020), 이러한 결과는 가사노동의 하위 영역에 따라 참여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매일 일상적으로 하는 '식(食)' 영역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의(衣)' 영역처럼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사노동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쏟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사노동을 세분화해서 살펴본 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사노동의 하위 영역별 특성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현재 30대가 집단 내적으로 이질적인 특성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성별이나 가족생애주기에 따라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30대가 가사노동 참여에서 보이는 내적 이질성을 다루기 위해서는 집단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가사노동이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집단의 내적 이질성을 드러내기 위해 적합한 잠재계층분석을 사용하여 30대의 가사노동 참여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분석에는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수집한 2020년 가족실태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가족실태조사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가사노동 참여를 다양한 영역에서 조사하기에 가사노동 참여 유형을 분석하려는 연구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2020년 가족실태조사는 전국의 10,997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대표 10,997명, 함께 사는 만 12세 이상 가구원 11,176명 등 총 22,173명을 조사하였으며, 그중에서 30대 남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가사노동 참여는 가족생애주기에 따라 질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결혼이나 출산과 같이 가족생애주기의 단계 구분과 밀접한 생애사건이 주로 30대에 일어나므로 30대 남녀가 가족생애주기의 여러 단계를 보여주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생애사건의 탈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김미영·김미란, 2015; 남춘호, 2015; 이순미, 2014), 가족실태조사에서 결혼보다 출산이 앞선 케이스는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혼 출산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최종분석대상은 30대 남녀 2,687명으로, 이들의 개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 2. 측정도구

#### 1) 가사노동 참여

2020년 가족실태조사에서는 가사노동을 음식 준비, 의류 손질 및 세탁, 청소 및 정리, 상품 및 서비스 구입, 주거 및 기타

〈표 1〉 분석대상의 개인 특성(N = 2,687)

		n/M	%/SD
성별	남자	1,326	49.35
	여자	1,361	50.65
교육수준	고졸 이하	502	18.68
	대졸 이하	1,978	73.61
	대학원 이상	207	7.70
취업여부	취업	2,082	77.48
	비취업	605	22.52
가족생애주기	형성기 이전	943	35.09
	형성기	304	11.31
	확대기	1,440	53.59
현재 경제상태		2.78	.71
성역할 태도		2.14	.83

가정관리 등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에 대한 참여 여부, 주평균횟수, 1회 평균시간을 조사하였다. 음식준비처럼 매일 필요한 활동은 정기적으로 하게 되지만, 청소 같은 활동은 비정기적인 속성을 지니며, 이러한 특성에 의해 참여 횟수나 1회 평균시간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5가지 영역에 대한 가사노동 참여 여부를 유형화 지표로 활용하였다.

## 2) 가족생애주기

가족생애주기는 공세권 외(1987)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공세권 외(1987)의 가족생애주기는 결혼, 출산 등의 생애사건에 따라 구분되며, 30대는 주로 형성기 이전(결혼 이전), 형성기(결혼~첫 자녀 출산), 확대기(첫 자녀 출산~막내 자녀 출산)에 걸쳐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혼인상태와 자녀 유무를 기준으로 미혼이면서 자녀가 없으면 형성기 이전, 배우자는 있지만 자녀가 없으면 형성기, 기혼이면서 자녀가 있으면 확대기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단계를 구분한 후, 형성기 이전을 기준으로 다미변수를 생성하였다.

## 3) 관련 변수

가족생애주기 외에 가사노동 참여 유형과 관련된 변수로 성별이나 교육수준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성역할 태도를 사용하였다. 성별은 남자를 '0', 여자를 '1'로 코딩하였으며,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 대졸 이하, 대학원 이상 등으로 구분한 후, 고졸 이하를 준거집단으로 하여 다미변수를 생성하였다. 취업상태는 취업과 비취업으로 구분하여 다미변수로 처리하였으며, 현재경제상태는 '현재 귀댁의 경제 상태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응답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현재경제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역할 태도는 '가족 내 남성과 여성

의 역할'에 대해 4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그 평균값을 구하여 모형에 투입하였다. 성역할 태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보수적인 성역할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표 2〉 참고).

〈표 2〉 변수 설명

변수명	변숫값
성별	0=남자, 1=여자
교육수준	고졸 이하(준거집단), 대졸 이하, 대학원 이상
취업상태	0=취업, 1=비취업
현재경제 상태	1=매우 나쁜 편이다, 2=나쁜 편이다, 3=보통이다, 4= 좋은 편이다, 5=매우 좋은 편이다
성역할 태도	가족 내 남성과 여성의 역할 4문항의 평균점수 - 가족의 경제적 부양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 - 가족의 의사 결정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 - 가사는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 - 가족 돌봄(자녀, 부모 등)은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
가족생애 주기	1=전혀 그렇지 않다, 2=별로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대체로 그렇다, 5=매우 그렇다 형성기 이전(준거집단): 결혼 이전 형성기: 결혼~첫 자녀 출산 확대기: 첫 자녀 출산~막내 자녀 출산

## 3. 분석방법

5가지 영역의 가사노동 참여 여부에 따른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을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jamovi*의 모듈인 *snowRMM*을 사용하였다. *snowRMM* 모듈로 잠재계층분석을 했을 때, 모형 적합도 지수로 AIC (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B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Entropy*,  $G^2$  (Likelihood ratio statistics),  $\chi^2$  (Pearson Chi-square goodness of fit statistics) 등이 보고된다. 이 중에서 AIC와

BIC는 값이 낮을수록 모형 적합도가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Mplus에서는 0에서 1 사이의 표준화된 Entropy 지수가 제시되지만, snowRMM 모듈에서는 비정규화된 Entropy 지수를 사용하므로 0부터 무한대까지의 값을 가지게 되며, 그로 인해 모형 적합도를 판단할 때 Entropy 지수를 참고로만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설현수, 2022).  $G^2$ 과  $\chi^2$ 은 적은 표본에서 많은 변수를 사용할 경우에  $\chi^2$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지만(설현수, 2022), 분석대상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모형 적합도를 판단할 때 두 통계값을 활용하였다. 잠재계층의 수는 모형 적합도 지수뿐만 아니라 잠재계층의 실질적 해석 가능성에 근거하여 결정하였다(홍세희·노인경, 2013).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한 다음에는 잠재계층 유형별 개인 특성을 비교하고,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잠재계층 유형을 구분하는데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였다. 최근 잠재계층분석을 할 때, 분류 오차를 줄이기 위해 3단계 접근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나, 구소희, 맹세호와 조영일(2020)에 따르면 사례수가 많다면 2단계 접근법과 3단계 접근법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따라서 잠재계층분석을 한 후에 잠재계층 회귀분석을 하는 2단계 접근법을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하였다. 모든 통계적인 분석에는 jamovi (version 2.2.5.0)를 사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가사노동 참여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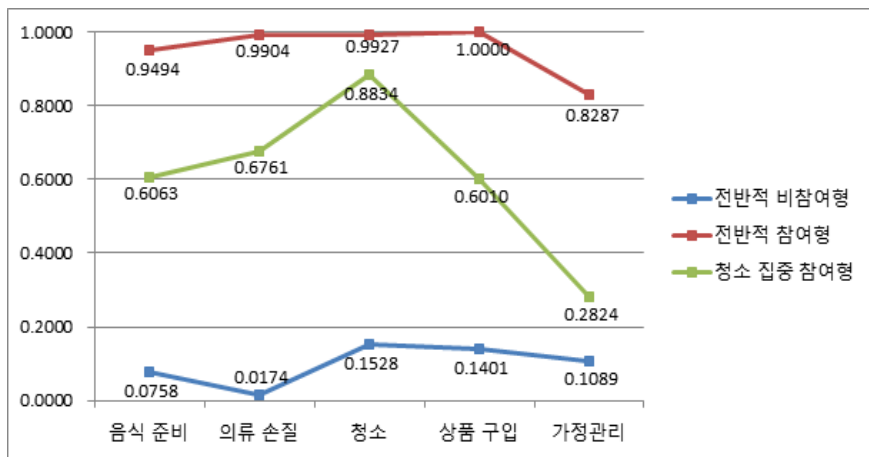
5가지 영역에 대한 가사노동 참여 여부를 기준으로 잠재계층분석을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잠재계층을 2개부터 1개씩 늘려갔을 때, AIC, BIC는 잠재계층이 4개인 경우에 가장 작았다. 그러나 잠재계층이 4개부터는  $G^2$ 과  $\chi^2$ 이 유의하지 않았으며, 잠재계층의 실질적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잠재계층이 3개인 모형이 4개인 모형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잠재계층이 3개인 경우의 조건부 확률그래프는 <그림 1>과 같다. 가사노동 참여 영역을 고려하여 3개 잠재계층집단은 각각 전반적 비참여형(18.05%), 전반적 참여형(59.96%), 청소 집중 참여형(21.99%)으로 명명하였다.

### 2. 가사노동 참여 유형별 특성

<표 4>는 잠재계층 유형별 개인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유형별 성별 분포를 비교하면 전반적 비참여형의 남자 비율이 82.68%로 가장 높지만, 전반적 참여형의 남자 비율은 32.59%로 반대 양상이 나타났다( $\chi^2 = 476.09, p < .001$ ). 교육수준 분포는 유형별로 차이가 없었으며, 취업상태는 전반적 참여형의 취업 비율이 71.32%로 가장 낮았다( $\chi^2 = 88.75, p < .001$ ). 잠

<표 3> 잠재계층의 모형 적합도

class	AIC	BIC	Entropy	$G^2$	$G^2 p$	$\chi^2$	$\chi^2 p$
2	12,403.28	12,468.14	2.33	460.63	< .001	511.65	< .001
3	12,117.59	12,217.83	2.25	162.95	< .001	192.91	< .001
4	11,973.02	12,108.63	2.22	6.37	.61	4.79	.78
5	11,982.42	12,152.41	2.22	2.77	.25	2.39	.30



<그림 1> 잠재계층집단의 조건부 확률그래프

〈표 4〉 잠재계층 유형별 개인 특성

		전반적 비참여형 (N = 485)		전반적 참여형 (N = 1,611)		청소 집중 참여형 (N = 591)		$\chi^2/F$
		n/M	%/SD	n/M	%/SD	n/M	%/SD	
성별	남자	401	82.68	525	32.59	400	67.68	476.09***
	여자	84	17.32	1,086	67.41	191	32.32	
교육수준	고졸 이하	96	19.79	301	18.68	105	17.77	7.08
	대졸 이하	365	75.26	1,173	72.81	440	74.45	
	대학원 이상	24	4.95	137	8.50	46	7.78	
취업상태	취업	428	88.25	1,149	71.32	505	85.45	88.75***
	비취업	57	11.75	462	28.68	86	14.55	
가족생애주기	형성기 이전	268	55.26	430	26.69	245	41.46	147.82***
	형성기	35	7.22	203	12.60	66	11.17	
	확대기	182	37.53	978	60.71	280	47.38	
현재 경제상태		2.69	.74	2.81	.71	2.78	.70	5.25**
성역할 태도		2.34	.85	2.06	.81	2.19	.84	22.46***

\*\* $p < .01$ , \*\*\* $p < .001$

재계층 유형별 가족생애주기는 전반적 비참여형의 경우 형성기 이전이 55.26%로 가장 높았지만, 전반적 참여형은 확대기가 60.71%로 가장 높았다. 청소 집중 참여형은 형성기 이전이 41.46%, 확대기가 47.38%로 다른 분포를 보여주었다( $\chi^2 = 147.82, p < .001$ ). 현재 경제상태는 전반적 참여형이 평균 2.81로 가장 높았으며, 잠재계층 유형에 따른 평균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F = 5.25, p < .01$ ). 성역할 태도 점수가 높아질수록 보수적인 성역할을 지닌다고 볼 수 있는데, 전반적 비참여형의 성역할 태도 점수가 평균 2.34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전반적 참여형의 성역할 태도 점수는 평균 2.06점으로 가장 낮았다( $F = 22.46, p < .001$ ).

### 3. 가사노동 참여 유형 관련요인

30대 기혼남녀의 가사노동 참여 유형을 구분 짓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참조). 청소 집중 참여형을 기준집단으로 하여 다른 유형을 비

교했을 때, 성별, 가족생애주기, 성역할 태도가 전반적 비참여형과 청소 집중 참여형을 구분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전반적 비참여형에 속할 확률이 50% 낮았으며( $B = -.70, p < .001$ ), 형성기 이전과 비교해 형성기, 확대기인 경우에 전반적 비참여형에 속할 확률이 각각 49%, 38% 낮았다(형성기  $B = -.68, p < .01$ , 확대기  $B = -.47, p < .001$ ). 그리고 성역할 태도는 보수적일수록 전반적 비참여형에 속할 확률이 증가하였다( $B = .15, p < .05$ ).

전반적 참여형과 청소 집중 참여형을 비교했을 때는 성별, 취업상태, 가족생애주기가 유의미한 관련요인이었다. 여자가 남자보다 전반적 참여형에 속할 확률이 272% 높았으며( $B = 1.31, p < .001$ ),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 전반적 참여형에 속할 확률이 46% 높았다( $B = .38, p < .01$ ). 가족생애주기와 관련해서는 형성기 집단이 형성기 이전 집단보다 전반적 참여형에 속할 확률이 68% 높았으며( $B = .52, p < .01$ ), 확대기 집단은 형성기 이전 집단보다 전반적 참여형에 속할 확률이 64% 높았다( $B = .49, p < .001$ ).

〈표 5〉 가사노동 참여 유형 관련요인 분석결과

	청소 집중 참여형 vs. 전반적 비참여형			청소 집중 참여형 vs. 전반적 참여형		
	B	Exp(B)	SE	B	Exp(B)	SE
상수	.35	1.43	.33	-.22	.80	.28
성별(남자)_여자	-.70***	.50	.16	1.31***	3.72	.11
교육수준(고졸 이하)_대졸 이상	-.06	.94	.16	.02	1.02	.13
교육수준(고졸 이하)_대학원 이상	-.41	.67	.29	.08	1.08	.22
취업상태(취업)_비취업	-.13	.88	.19	.38**	1.46	.14
가족생애주기(형성기 이전)_형성기	-.68**	.51	.23	.52**	1.68	.17
가족생애주기(형성기 이전)_확대기	-.47***	.62	.13	.49***	1.64	.11
현재경제상태	-.14	.87	.09	.08	1.09	.07
성역할 태도	.15*	1.16	.08	-.05	.95	.06

-2LL = 4,486.47,  $\chi^2 = 612.46^{***}$ , Nagelkerke  $R^2 = .16$

\* $p < .05$ , \*\* $p < .01$ , \*\*\* $p < .001$

## V. 결론 및 제언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거부하고 동반자적 의식을 가진 30대, 취업, 결혼, 출산 등 생애사건에 따른 생애주기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30대를 중심으로 가사노동 참여 유형을 나누고, 유형별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변화하고 있는 가사노동 참여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020년 가족실태조사 자료에서 30대 성인남녀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가사노동을 음식 준비, 의류 손질 및 세탁, 청소 및 정리, 상품 및 서비스 구입, 주거 및 기타 가정관리 등으로 구분한 후, 5가지 영역에 대한 참여 여부를 유형화 지표로 삼아 잠재계층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 비참여형(18.05%), 전반적 참여형(59.96%), 청소 집중형(21.99%)의 3개 집단으로 유형화되었다. 가사노동 참여 유형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성별, 취업상태, 가족생애주기, 성역할 태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 집중 참여형을 기준으로 여자는 남자보다 전반적 비참여형에 속할 확률은 낮았지만, 전반적 참여형에 속할 확률은 높았다. 가족생애주기에 따라서는 형성기, 확대기인 경우에 형성기 이전보다 전반적 비참여형에 속할 확률은 낮았으며, 전반적 참여형에 속할 확률은 높았다.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 전반적 참여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고, 성역할 태도가 보수적일수록 전반적 비참여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30대가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동반자적 의식으로 공평한 가사분담을 지향하고(중앙일보, 2019; 통계청, 2020), 실제 Y세대 기혼남성은 이전 세대인 베이비붐세대와 X세대와는 달리 가정 내 요구와 가용한 시간이 있으면 가사에 참여하는 경향(이현아·김주희, 2021)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젊은 세대에서도 가사노동의 성별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성별 차이를 보여준 선행연구(서지원 외, 2021; 이진숙·이윤석, 2018)와 유사하게 가사노동 참여 유형에서도 여성이 가사노동의 모든 영역에서 일상적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더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사노동의 속성 중 '성불평등성'이 세대 불문 진행형임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같은 30대라 할지라도 가족생애주기에 따라서 가사노동의 참여 유형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족생애주기에서 가장 두드러진 양상은 자녀가 있는 확대기인 경우, 가사노동의 모든 영역에 참여가 높은 전반적 참여형이 많은 데 반해, 형성기 이전에는 주로 청소를 중심으로 하는 청소 집중 참여형이 많다는 점이다. 가족생애주기에 따라 가족의 요구와 과업이 달라지는 만큼, 가사노동 참여 형태가 가족생애주기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같은 세대 내에서 가족생애주기에 따라 가사노동 참여 유형은 질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것으로, 가사노동시간이나 참여율이 생애주기에 따라 다르다는 연구결과(이진숙·이윤석, 2018)와 부합한다

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30대를 대상으로만 이들의 가사노동 참여 유형을 분석하였는데, 이후 연구는 30대뿐 아니라 다른 연령대를 함께 비교분석함으로써 세대 간 특성과 차이를 더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5가지 영역에 대한 가사노동 참여 여부를 유형화 지표로 삼았는데, 후속연구에서는 가사노동 참여의 다양한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연구방법을 더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30대의 가사노동 참여유형 구분과 유형별 특성 분석을 통해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세대의 가사노동 참여 양상을 파악하고, 같은 세대 내에서도 가사노동 참여 유형의 차이를 조래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가사노동의 속성 변화를 진단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성별과 가족생애주기에 따른 가사노동 참여 유형은 향후 가사노동 관련 정책과 과제를 전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고은주·김진옥(2016). 자녀연령과 계층적 요인이 영유아 자녀 직접돌봄시간 유형에 미치는 영향: 퍼지셋 이념형 분석의 활용. 보건사회연구, 36(4), 35-62. DOI : 10.15709/hswr.2016.36.4.35.
- 2) 공세권·박인화·조애저·김진숙·장현섭(1987). 한국 가족구조의 변화: 가족생활주기 조사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3) 구소희·맹세호·조영일(2020). 3단계 접근법을 활용한 잠재계층모형의 추정. 인문사회21, 11(2), 29-44. DOI : 10.22143/HSS21.11.2.3.
- 4) 김미영·김미란(2015). 기혼 무자녀 여성의 '가족실천'을 통해서 본 생애과정의 탈규범화. 젠더와 문화, 8(2), 33-69. DOI : 10.20992/gc.2015.12.8.2.33.
- 5) 김선희(1991).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전업주부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6) 김외숙·이기영(2015). 가사노동과 시간관리.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7) 남준호(2015). 생애과정의 탈표준화에 대한 경험적 연구: 남성들의 성인이해 배열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9(1), 139-174. DOI : 10.33071/ssricb.39.1.201504.139.
- 8) 배소영·반영환(2020). 밀레니얼 세대의 태대분석을 통한 가사노동서비스 연구. 디지털예술공학멀티미디어논문지, 7(2), 107-116. DOI : 10.29056/jdaem.2020.06.02.
- 9) 배호중(2015). 맞벌이 가구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홀벌이 가구 남편과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1(4), 151-181.
- 10) 서울특별시(2022). 2022년 도시정책지표 조사 결과보고



- 서. 서울특별시.
- 11) 서지원 · 기은광 · 고선강(2021). 한국 여성과 남성의 세대별 가사노동시간의 변화(1999~2019): 가정관리 및 가족돌봄 시간을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5(2), 53-78. DOI : 10.22626/jkfrma.2021.25.2.005.
  - 12) 설현수(2022). jamovi 통계프로그램의 이해와 활용(3판). 서울: 학지사.
  - 13) 손정민 · 김현수 · 이은희(2015). 에코붐 세대의 심리사회적기능계적과 예측요인: 사회적 스트레스 관련변인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7(3), 27-53.
  - 14) 송태민 · 진달래(2013). 베이비붐 세대 및 에코 세대의 자살 특성분석. *보건 · 복지 Issue & Focus*, 180, 1-8. DOI : 10.23064/2013.03.180.
  - 15) 엄규숙 · 황석만(2019). 맞벌이 가구 가사 분담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현상과 인식*, 43(2), 75-102. DOI : 10.46349/kjhss.2019.06.43.2.75.
  - 16) 은기수(2009). 한국 기혼부부의 가사노동분업. *한국인구학*, 32(3), 145-171.
  - 17) 이기영 · 이연숙 · 김외숙 · 조희금(1996). 한일양국간 도시부부의 생활시간 비교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4), 145-161.
  - 18) 이순미(2014). 생애과정의 복합적 탈근대화 와 가족화와 개인화의 이중적 과정: 1955-1974년 성인기 이행 배열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8(2), 67-106. DOI : 10.21562/kjs.2014.04.48.2.67.
  - 19) 이승미 · 이현아(2011). 맞벌이 임금근로자 남녀의 생활시간구조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9(5), 81-96.
  - 20) 이윤경(2021). 생애주기의 연령기준과 연령규범에 대한 인식. *보건복지포럼*, 293, 39-54. DOI : 10.23062/2021.03.4.
  - 21) 이진숙 · 이윤석(2018). 성인이행기 남녀의 가사노동 시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여성연구*, 98(3), 65-95. DOI : 10.33949/tws.2018.98.3.003.
  - 22) 이진숙 · 이윤석(2020). 출산 전후 부부의 가사노동 변화. *가족과 문화*, 32(4), 155-188. DOI : 10.21478/family.32.4.202012.006.
  - 23) 이현아 · 김은정 · 김유경(2022). 가사노동과 돌봄 정책.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24) 이현아 · 김주희(2021). 세대별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 연구: 베이비붐세대, X세대, Y세대를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5(4), 71-86. DOI : 10.22626/jkfrma.2021.25.4.006.
  - 25) 장인수 · 우혜봉(2017). 기혼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 차이의 영향요인 분석. *여성연구*, 95(4), 41-72. DOI : 10.33949/tws.2017.4.002.
  - 26) 정영금(1989).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를 위한 방법론적 모색.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7) 조미라 · 윤수경(2014). 한국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 변화 연구: 교육수준에 따른 격차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44, 5-30. DOI : 10.16975/kjfs.2014.44.001.
  - 28) 중앙일보(2019.5.5). '밀레니얼 가족'이 사는 법 ①...음식, 해 먹지 않고 사 먹는다. <http://www.joongang.co.kr/article/23459000#home>.
  - 29) 통계청(2019). 2019년 생활시간조사지침서. 대전: 통계청.
  - 30) 통계청(2020.7.30.).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보도자료.
  - 31) 통계청(2023.2.22.a). 2022년 인구동향조사 출산 · 사망통계(잠정). 보도자료.
  - 32) 통계청(2023.3.16.b). 2022년 혼인 · 이혼 통계. 보도자료.
  - 33) 허수연 · 김한성(2019).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시간과 분담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64, 5-29. DOI : 10.16975/kjfs.2019.64.001.
  - 34) 홍세희 · 노연경(2013). 남자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시간 변화형태에 대한 잠재계층 추정 및 비행형태와의 관련성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4(4), 119-248.
  - 35) Becker, G. S.(1965).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The Economic Journal*, 75(299), 493-517. DOI : 10.2307/2228949.
  - 36) Beutler, I. F. & Owen, A. J.(1980). A home production activity model.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9(1), 16-26. DOI : 10.1177/1077727X8000900102.
  - 37) Reid, M. G.(1934). *Economics of household production*.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38) Walker, K. E. & Woods, M. E.(1976). *Time use: A measure of household production of family goods and services*. Washington, DC: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 투 고 일 : 2022년 09월 27일  
 ■ 심 사 일 : 2023년 05월 07일  
 ■ 계 재 확 정 일 : 2023년 08월 23일